

대림 제4 주일

기도서 222면 (다해)

제1독서 : 미가 5, 1-4a

제2독서 : 히브 10, 5-10

복음 : 루가 1, 39-45

# 숲 정 이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종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  
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어  
찌된 일입니까?”  
(루가 1, 42-43)

## 강론

### 참 기쁨의 성탄이기 위하여...

정 천봉 신부/여산주임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로마13, 11).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고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나는 묵은 사람으로 남아 있고 마치도 이 세상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는 것 같은 삶을 살아 왔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온갖 수단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찾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 위망, 낙담하는 자신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래도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을 한번 더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 기회는 여러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긴급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 “깨어 기도하라” 이제 대림의 마지막주이고 보면 성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심과 만남에 대한 근본적 결단의 촉구입니다.

하느님이 오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극적인 협조의 요청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마중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마리아는 모범으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중 나간다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간다고 할까요! 세상살이에서 잃었던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수락했고,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하느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느님 오심은, 이처럼 큰 신앙과 그분의 사랑을 믿는 이들의 용기있고 힘있는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시록 맨 마지막에서 신랑은 “내가 곧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신부는 “오소서 주 예수여”라고 대담하고 있습니다(묵시22, 20).

이 신랑을 맞는 신부의 모습은 대림 마지막 주를 맞는 우리의 자세이며 이보다 더 훌륭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으로 드러난 성탄이라고 할 때 기쁨의 성탄은 그저 주어지는 선물만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대림시기를 지내며 참 기쁨의 성탄이 되도록 잘 준비합시다.

## 소리

### 얼어붙은 들길에 나서보자.

한해동안 우리는 많은 발언을 했다. 순수한 목소리로, 자신없는 목소리로, 혹은 격렬한 목소리로. 선언을 했고 반박을 했고 간혹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도 했으며 비논리적인 설득에 굴복도 했다. 그러나 개선을 위하여 젊은 이답게 항의하듯, 자책하듯, 뒤집어 엮을듯이 말했다.

그리하여 발언에 대한 답변이나 진지한 토론은 없었지만 우리 숲정이 가족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자유가 넘쳐 흐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수많은 아이스크림 품목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자유, TV 흡인력에 세뇌당할 수 있는 자유, 요란 변칙한 카바레에서 맛도 모르는 술에 취하여 비트적거릴 수 있는 자유, 이러한 화려한 자유의 홍수에 들뜬 나머지 그 속에 숨어 기어들어오는 敵에게 계속적인 유린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敵은 이미 우리들에게서 더 위협하지 않는 삶에 꿈을 거두어 갔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으며 참다운 「나」에 대한 인식조차 빼앗아 버리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자유의 뒷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참모습을 반성할 여지도 능력도 상실해 가고 있다.

거짓된 자유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자기 정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 길은 살을 찌는 비바람과 싸워나감으로써만 도달될 수 있는 길이다. 떨어진 한개의 낙엽에서 아무런 감동도 얻지 못함은 내면에 잠재한 영혼의 실체를 보고들을 눈과 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얼어붙은 들길에도 나가보고 도시의 골목에 갇든 낮익은 어둠도 새롭게 바라보자. 물질보다 정신이 우위에 선다는 원칙만이라도 되새겨 두자.

### 숲정이 산책



지나가야할 터널

### 연옥(煉獄) = 정화(淨化)의 단계

천국과 지옥의 특성을 말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지옥엘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한결같이 뼈째 팔라 있더라는 것이다. 이유인즉은 음식이 놓여 있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는 젓가락이 너무나 길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입에 넣기에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만 먹으려 기를 쓰다보니 자기도 남도 먹지 못한 채 모두 비참하게 있더라는 이야기인 반면에 천국에 가보니 모두가 포동포동 살이 쩍 보기가 좋았는데 이유인즉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긴 젓가락을 재미있게 놀리며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 주므로 맛있는 음식은 모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더라는 얘기이다.

그동안 멧화에 걸쳐 살펴봐왔듯이 '천국'이란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의 상태를 말하며, 지옥이란 사랑이 완전히 파멸된 상태, 미움과 저주만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천국은 사랑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이다.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불순하고 복잡하며 추하고 더러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우리중에 누가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어찌 감히 하느님의 그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정화(淨化)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느님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정화되어 순수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하여도 정화되지 않은 지금의 내 영혼은 도저히 그 천국을 맞을 수 없다. 바로 이 정화의 단계, 사랑자체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연옥'이라 한다. '연옥의 고통'-이는 복되여라! 사랑하기에 겪는 '사랑의 아픔'입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겠기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영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 성서와 함께

## 32. 헤로데 가문과 팔레스티나의 통치(A) : 헤로데 대왕

헤로데 가문의 왕들은 예수 및 초대교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헤로데는 기원전 37년 하스모네아 왕가의 마지막 왕 안티고누스를 로마 군대를 힘입어 폐위시키고 팔레스티나를 차지하였다. 그는 로마와 타협하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다스렸던 폭군이었다. 기원전 4년 죽을 때까지 헤로데는 수많은 건축사업을 벌여 유대인들을 괴롭혔다. 저 유명한 마사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요새를 지었고 사마리아시를 건설하면서 아우구스트를 위한 신전을 그도시에 세웠다. 헤로데는 가이사리아(체사레아)시도 건설했는데 그 곳에 극장과 전차 경기장 같은 문화시설도 건립하였고, 특히 이 도시에 거대한 인공 항구를 만들었다.

예루살렘시에는 성전 동쪽 편에 출입문들과 회랑들과 장터가 들어설 수 있는 넓다란 광장을 건축하였다. 성전의 지성소도 재건되었다. 이 모든 건축사업을 위해 헤로데는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과 부역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그의 가문에 속한 어떤 왕들보다 나쁜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그는 유대인들의 참된 왕족인 레위 부족의 하스모네아 가문의 왕을 축출하였다.

- 2) 종족상 그는 이두메아인, 곧 에돔 사람이었다.
- 3) 그는 유대인들의 적 로마의 친구 였다.
- 4) 그는 사람들을 함부로 살해했고 법과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
- 5) 그는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조그만 혐의가 있어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들조차 가차없이 제거하였다. 마태 2, 16의 무죄한 영아들의 살해 이야기는 헤로데의 이런 잔인한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헤로데를 증오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헤로데가 이방인 출신이고 친로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 단 그들은 헤로데의 폭정을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하였다. 사두가이파도 그를 미워했다. 성전에서의 권리를 상당한 부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몇몇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미움과 분노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야훼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켈롯 곧 열혈당원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헤로데는 자신의 죽음에 가까와지자 유대인 남자 200명을 자기와 함께 죽도록 살해명령을 내렸다. 자기 때문에 고통해줄 사람들은 없겠지만, 다른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임종시에 통곡하리라는 계산에서였다. 헤로데가 죽기(BC4) 직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신다(마태2장).

컴퓨터 시설로 자연그대로  
색상재현  
**미영칼라현상소**  
전 병전 (토마스모아)  
이 영의 (투리모니아)  
전주시 중양동 3가 30 (삼화약국 앞)  
☎ 84-9286,3651

**방학 검도 특별지도**  
1. 정신집중교육  
2. 신념과 교육으로 자신감 향상  
**세심검도체육관장**  
검도6단 김태경 (빈첸시O)  
☎ 72-8009 (금암아파트 ← 백제로 중간)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머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고사동(신희예식장 골목)  
☎ 6-1902

# 교 구 소 식

1. 통신교리 : '89.1.1부터 교구 사목국에서 실시 합니다.
2. "한마음 한몸"운동 중 헌혈은 본당에서 집계하여 사목국에 통보해 주시면 혈액원 헌혈차량을 보내 드립니다.
3. 성탄위문금품 수집 : 20일까지 교구 사목국에서 접수합니다.
4. 교구 사목수첩 배포 : 20일(화) 사목국에서
5. 초등부 어린이 복사단 교육 : 일시-북전주, 군·옥, 임·순·남, 무·진·장, 삼례지구 : 89년 1월 12일(목) 오전9시반-오후5시 남전주, 이리, 김제, 정읍, 익산지구 : 89년 1월 13일(금) 오전9시반-오후5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대상-국민학교 어린이 복사 참가비-1인당 3,000원 신청-89년 1월 6일(금)까지 교육국
6. 초등부 교리교사 학교 : 일시-'89.1.16-19(3박4일) 장소-무주 자연학습원 접수-1.6(금)까지 교육국 내용-피정, 교재연수, 아동심리, 교리교수법, 교사의 소명
7. 중·고 전례부원 연수 : 일시-89.1.8(일) 오전9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 복사단 및 해설자 접수-1월4일(수) 각본당 4명에 한함
8. 중·고 교리교사 학교 : 89년 1월 9일(월) 오전9시-12일(목) 오후4:30 장소-무주 자연학습원 내용-피정, 성서, 레크레이션 기초 이론및 실제, 심성개발, 학습과정
9. 가톨릭교리 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신입생 모집(우편통신의 방법에 의한 2년 교육과정) : 교과내용-신구약성서, 그리스도교 교의, 교회론, 성사론, 전례, 윤리신학, 영성생활, 교리교육 대상-세례받은 신자 및 수도자(연령제한 없음) 자격-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유자 지원서류-입학원서, 사진3매(4.5×5),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원서교부-1989.1.4-1.31 원서접수-1989.1.25-2.4 \*우편으로 원서청구시 3,700원(소액환)을 동봉바람. 연락처(110-530)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745-8339(직), 762-2272~4

방송안내 : 11일, 18일, 25일 오전 7시 45분 MBC라디오 향토의 숨결-각성당 순례  
CBS-매주 화요일 오후2시 50분 CBC에세이 신자분들의 많은 정취 바랍니다.

## 잠깐!

### 수녀님들의 헌혈

19세기 초엽, 성체 안에 제신 주님의 현존에 대한 신앙에 끌려 가톨릭 교회로 개종한 미국의 성녀 엘리사벳 씨튼은 성체성사에서 일생동안 끊임없는 위로를 발견하였다. 성녀께서는 "나는 천사들의 빵을 먹음으로써 원기를 찾고 격려를 받으며 위로와 만족을 얻고 내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하느님 안에 쉬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다. 성녀께서는 성체를 통해서, 자신은 그저 음식을 먹고 살다가 죽어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으며, 그러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항상 느끼고 사신 것이다. 결국 이 사랑의 체험은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그의 온 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조리 내어 놓게 하였다.

이제 44차 세계성체 대회도 열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이는 어떤 군중 집회를 갖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를 도구로 성체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 이 엄청난게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쉬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시는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나도 나를 이웃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어 놓게 하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의 남는 피'를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헌혈'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첫 모범을 순결하신 우리 수녀님들께서 보여주신 것이 되었음은 기쁘고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2월 17일 우리 교구에서는 '인보 성체회' 수녀님들의 단체 헌혈을 선두로 이 운동이 모든 본당, 단체, 직장으로 번져나가 피 한방울, 살 한점까지도 우리의 음식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자신도 느끼고 이웃도 체험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 요십이 (802) 김병오



### 간호조무사구함

인원 : 0명  
자격 : 올해 졸업할 용모단정헌 조모사 (졸퇴근함)  
문의 : **군산안과**  
군산 42-2171  
● 전화문의는 사양함.  
본인 이력서 지참 방문요.

### 흥익미술학원

- 89 정규반 원아모집
- 5세 유아반 · 6세 국민반 · 7세 초·중·고반
- 겨울방학특별반 모집
- 고급연필 · 유화선반 · 도화선

원장 김 승균 (아우구스타누스)  
원감 이 가우 (율리안나)  
이리 마송A.P.T. 앞  
☎ 2-8692, 51-0548

### 전북의료조합 지정 이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전문의 이 종두 (헨리코)  
김 성자 (젤마나)  
중양국교묘, 팔달로 건너편  
☎ 83-3113, 3112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 희웅 (임부르시오)  
전주시 고사동1가 연금애점 남쪽  
(오거리) ☎ 83-3335

### 개원 문진균치과의원

전문의 문 진균 (요한)  
관동로사거리 서울신탁은행맞은편  
☎ 86-4528

"발표력을 기릅시다. 웅변을 배웁시다"

### '89.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구.서종로터리) ☎ 3-3284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 앞) ☎ 4-3948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자쌍용APT 앞) ☎ 83-8331~2  
원장 유 병철 (베드로) · 원감 박 경애 (인젤라)



#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본당에 카페테 제공해 주신 나궁열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당 후반기 신앙교육에 참여하신 신자분들과 애써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쁨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3. 성탄행사일정: 5시-영세식, 7시~10:30분-성탄행사, 11시-성탄미사
4.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12월20일-23일까지 저녁7시부터
5. 금주전례: 독서①구근회 ②이영희 봉헌-허 연부부  
차주전례: 독서①국영석 ②임순자 봉헌-손순식부부

☐지난주봉헌금: 273,740원 ☐교무금: 533,000원

##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원

1. 대의원회: 공식미사후 89년도 예산안및 사목회장 선출
  2. 축! 성탄: 전야미사 11시, 전야제-중·고생 주일학생 연극장기자랑 복권추첨 있음
  3. 버스이용안내: 맹산, 제성, 범성, 석동 공소는 6:30분까지 두동 교항 성당 공소는 6:50분까지 도로변에 나오셔서 기다리십시오.
  4. 연말이 다가옵니다. 약속된 교무금 완납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5. 성지개발을 위한 가정 봉헌서: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6. 판공찰고지: 빠짐없이 가져옵시다.
- 금주전례: 해설-박인근 독서①박수규 ②한순옥  
봉헌-전종옥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성용 독서①박종철 ②송영자  
봉헌-박인규 부부
- ☐지난주봉헌금: 172,630원

##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1.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43,1-34 마르코15,1-47
2. 불우이웃 돕기 폐품수집: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모임: 울트레아-목요일 저녁8시 꾸리아-공식미사후 청년회-다음주 공식미사후
4. 성탄절 행사 안내: 7:30-9시까지·성탄 성가찬송(가정방문), 9-10시까지 촛불 행렬(가두행진...학생회 초관매), 10시-12시까지 성탄 밤미사 및 세례식, 공소신자 차량제공, 간식제공
5. 성탄성가연습안내: 전신자-16일~22일까지 중·고생-19일~23일까지 주일학교-13일~23일

☐지난주봉헌금: 167,090원 ☐교무금: 810,000원

##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1. 구역장, 반장, 반상회지도자모임: 오늘 공식미사후
  2. 청년회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3. LM연총친목회: 25일 공식미사후
  4. 성탄위문금품 모임: 오늘까지
  5. 판공성사일정안내: 20일 3시 석매리 21일 10-12시 삼시상, 상시하 2시-5시 남당리, 하시
  6. "축" 결혼: 24일 12:30 신랑-최병섭(베드로) 신부-이숙희
  7. 금주전례: 해설-임수진 독서①박창중 ②김영자  
차주전례: 해설-김광태 독서①김정수 ②최봉옥
- ☐지난주봉헌금: 370,180원 ☐교무금: 1,289,500원

## \*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울수  
수녀원 9-3196

1. 온누리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2. 샛별꾸리아 월례회: 밤7시
3. 영세예비자 집중교리: 19일-22일 밤 미사후 \*영세식 24일 오후3시 대부모님들 시간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4. 샛별꾸리아 연총친목회: 24일 밤7시 Pr별 장기자랑 있습니다.
5. 성탄절 행사: 24일 자정미사, 미사후 축하잔치 25일 10시 공식미사 \*어린이 토요미사 및 학생미사 없음
6. 사랑의 성미: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7. 금주전례: 특전-황명규 양경희  
공식-이주봉 이선희  
차주전례: 성야-김복동 양정희  
공식-김울수 양남순

제물봉헌: 금주-김자선부부 성야-김울수부부 공식-최병윤부부  
☐지난주봉헌금: 392,750원 ☐교무금: 914,000원

##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1. 성모회: 공식미사후 회합실에서
  2. 데레사회: 공식미사후 사무실에서
  3. 세례식: 24일 오후2시
  4. 성탄행사안내: 24일 7시 전야미사 11:30 자정미사 25일 10시 공식미사 24일 8시 어린이성극 24일 8시 구역공소 유복회
  5. 가을 판공찰고지 오늘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6. 금주전례: 첫미사-이용재 박춘래 공식미사-전병철부부  
차주전례: 자정미사-김상규부부 공식미사-최강철 도정옥
- ☐지난주봉헌금: 147,840원

##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삼영

1. 성모회: 공식미사후 사무실에서
2. 학생회: 공식미사후 성당에서
3. 꾸리아: 공식미사후 성탄축일관계로 앞당겨 합니다. \*공소신자분들은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4. 판공일정: 성지 20일 오전10시  
본당판공-22일:영전, 유성, 동촌, 교항. 23일:서촌, 뒷말, 남산, 두여리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부터5시 성야 주시겠습니다. 빠짐없이 판공성사에 입하십시오.
5. 금주전례: 독서①임정남 ②이정순  
봉헌-남상현 김택수 부부
6. 차주전례: 독서①임병기 ②박대희  
봉헌-홍순길 이명주

☐지난주봉헌금: 172,460원 감사합니다.

## \*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모임: ①구역장회의-공식미사후 ②구역형제회의-수요일 저녁8시 2. 금주판공: 10구역-12월20일
3. 성탄영세자특별교리: 12월19일-12월22일 오후2시
4. 영세식: 12월23일 오후2시 \*영세대상자는 오후1시까지 참석요망 5. 성탄 성가경연대회 출연자 신청: 오늘까지
6. "축" 결혼: 신랑-조성수(라파엘)군 신부-정경순(데레사)양 오늘12시
7. 금주전례: 해설-김종규 독서①허순호 ②박옥분  
봉헌-장상순 천정순  
성탄전야: 해설-김낙천 독서-장현순 부부  
봉헌-신경자 방순중

차주전례: 해설-김용자 독서-이희봉 부부  
봉헌-최정덕 김순래

☐지난주봉헌금: 277,030원 ☐교무금: 705,000원  
☐특별헌금: 본당 방순중 감사헌금 금일봉  
☐애령회 감사헌금: 양산 신상식 일금 10만원 감사헌금